[농림부] 한-캐나다 FTA 7차 협상 결과(농업분야)

농림부는 9월 25~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7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 참가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호 관심품목을 반영한 2차 양허안을 교환하고 협상을 벌였다.

농산물 양허안은 상품양허협상의 핵심으로서 1차 양허안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한 민감품목을 현행관세유지로 제시하였다.

※ 2차 양허안 양허율(농산물)⇒ 품목수: 83.3%, 수입액: 62.6%

캐나다측은 쌀, 인삼, 버섯, 고추, 낙농품 등 우리측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대두, 유채유, 사료용 완두콩, 보리, 꿀, 단풍당 시럽에 대한 양허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반면에, 우리측은 섬유 및 공산품에 대한 추가 양허를 요구하였다.

양측은 금번 교환한 양허안을 토대로 8차 협상(11월 4째주, 서울)에서 상세히 관세 양허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허안 논의의 진전을 위해 상품분과 아래 농업을 비롯한 3개 소분과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 2006. 10. 3 / 연합뉴스 -